

'왓수다팀', 은상 등 수상

글쓰기 : 홍보출판문화원

작성일 : 16-12-14 15:29 조회 : 252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K-ICT NET챌린지 캠프 시즌3 시상식'에서 제주대 왔수다팀(지도교수:송왕철)이 'IoT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로 은상과 (주)LG유플러스 통신사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총 40개 팀이 참여해 아이디어 기획안을 제출했으며, 최종 대학생팀 15개 과제, 중소·벤처기업팀 4개 과제가 선정돼 전문적인 멘토링과 KOREN 환경을 기반으로 5개월 여간 연구개발 및 상용화 검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왔수다팀의 결과물이 우수성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또한 왔수다팀은 제주대 컴퓨터공학전공학생(조원익 4, 김태훈 4, 현승호 4, 김재현 3, 이시은 3, 장은아 3) 6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수상한 왓수다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고, (주)LG유플러스 입사지원 시 서류면제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올해 3번째 개최된 K-ICT NET챌린지 캠프는 대학생과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관련 새로운 ICT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중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교수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